광양매화축제 '체류형 축제 발돋움'…85만명 다녀갔다

'매란국죽' 사군자 테마축제 선봬…지속가능성 확보
첫 유료화 7억5천만원 입장권 수익·축제상품권 '호응'

광양시가 올해 매화축제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85만명 방문을 기록하며 체류형 축제로 발돋움했다. 사진은 광양매화마을 전경. 〈광양시 제공〉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차 없는 축제장, 착한가격 먹거리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열흘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개막한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개화 시기부터 누적 방문객 85만명을 기록하고, 낙화 시기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신안·함평·담양과 사군자 테마축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시는 차 없는 거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을 조성했으며, 개최 최초로 입장료를 도입하되 받은 입장료를 축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다시 제공해 지역민·관광객 모두가 상생하는 축제로 발전시켰다.

축제기간 유료 입장객은 약 15만명으로 약 7억5천만원의 입장권 판매 수입을 올렸다.

매화랑 1박2일, 섬진강 맨발 걷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 섬진강 뱃길 체험 등 차별화된 콘텐츠는 관광객이 축제에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광양도시락 등은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했다.

축제상품권만으로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광양도시락, 각종 체험료를 5천원으로 책정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환경운동가 조승환의 개막 이벤트와 다회용기 부스, '용기를 주세요' 이벤트 등을 실천했다.

이어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의 주제관으로 운영된 사군자테마관도 4개 지자체(광양·신안·함평·담양)의 매란국죽을 표현한 시서화, 분재, 공예, 영상 등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 전시로 눈길을 끌었다.

섬진강 둔치에서 펼쳐진 유럽형 프리마켓 '리버마켓@섬진강'은 지역 청년·셀러들의 열정과 감각이 묻어나는 상품을 판매,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관심을 받았다.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는 광양시립예술단 공연과 청춘버스킹 등이 펼쳐져 상춘객들의 흥을 돋우고, 축제 폐막일에는 광양시립국악단의 공연으로 광양매화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인화 시장은 "꽃을 소재로 한 축제는 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이 관건인데 올해 축제 기간 내내 꽃의 절정을 보여드릴 수 있어 안도했다"며 "앞으로도 매화축제가 지역민·관광객 모두가 만족하고,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7일 매화축제가 공식 폐막됐지만 상춘객의 방문이 이어질 것을 예상,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주차관리·교통지도 등 행정지원을 연장한다.

/광양=양홍렬기자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단지 예타 면제 환영"

尹 대통령, 우주 클러스터 출범·민생토론회서 재차 언급

공영민 고흥군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행사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52만평)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예타를 면제한 민간발사장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실었다.

공영민 군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예타 면제를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과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예타면제 추진을 위해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최봉환기자

'풍요로운 담양쌀' 프랑스 수출길

현지 식료품 유통업체 'ACE FOOD SAS' 계약…12t 선적

담양에서 생산된 '풍요로운 담양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랑스 수출길에 오르며 딸기에 이은 또 다른 효자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이기복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장, 김범진 담양농협장, 양남근 수북농협장, 박요진 봉산농협장, 이종혁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프랑스 현지 아시안 식료품 유통 전문업체인 'ACE FOOD SAS'와 계약해 수출 전용 브랜드인 풍요로운 담양쌀 12t을 선적했다. 〈사진〉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이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요즘, 담양군은 지난해 미국,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에 담양쌀 129t을 수출한 경험을 토대로 유럽 전역으로 담양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담양쌀이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대상, 현재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8회 대상, 5회 최우수상을 받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쌀이기에 가능했다.

이병노 군수는 "현재 딸기, 쌀, 가공식품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담 부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담양의 뛰어난 농특산물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보성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박차'

국도비 173억 투입…올해 4개 지구 준공 예정

보성군은 19일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국도비 173억원을 확보,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이 사업은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 하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생활 오수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 등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조성면 대전마을 등 10개 지구에 하수관로 76㎞ 매설, 하수처리장 8개 신증설, 2천여 가구 대상 배수 설비 설치 공사를 추진하며 체계적인 하수 처리 구역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벌교읍 낙성, 조성면 삼정, 문덕면, 웅치면 용추 등 4개 지구에 준공 예정으로 총 19개 마을, 490여가구에 이르는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보성=임병언기자

곡성군, 귀농인 농업창업·저금리 융자 지원

8농가 선정…5년 거치·10년 분할상환

곡성군은 "최근 '2024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위원회를 개최, 귀농인 8농가에게 10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임준섭 곡성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 한철우 농업경영인 곡성군연합회 회장, 이지숙 생활개선회 곡성군연합회 회장, 농협군지부 여신팀장 등 4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안을 심의했다.

선정된 8농가는 지원된 금액으로 농지 구입, 한봉·양봉, 과수원 조성, 저온저장고, 주택 구입 등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 실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는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서연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화순군은 19일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사진) 자원봉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4월19-28일까지 10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봉사자는 축제장 행사 지원, 환경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1365 나눔 포털에 가입된 중·고·대학생과 일반 주민으로 화순군자원봉사센터(화순군 가정활력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자원봉사센터(061-379-3557·3558)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 열린다

내달 14일 개최…오는 31일까지 선착순 2천명 접수

장흥군은 19일 "제18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가 다음달 14일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흥군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올해 대회는 참가 선수 2천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기 시작 전에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도 준비됐다. 탈북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아리랑 예술단이 출발 전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인다.

또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선수도 행사 당일 참석해 팬 사인회를 연다.

대회 코스는 하프코스, 10㎞ 단축코스, 5㎞ 건강코스 3개 그룹으로 나눠 치러진다.

탐진강변에서 출발하는 하프코스(21.97㎞)는 유치 오복1교를 통과해 200m 지점에서 돌아오며, 단축코스(10㎞)는 부산면 교차로에서 반환하는 코스다.

건강코스(5㎞)는 부산교 앞을 경유하고, 탐진강 제방길을 따라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다.

하프코스와 10㎞ 단축코스 참가자에게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5㎞ 건강코스 참가자에게는 스포츠 양말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864-1188)로 하면 된다.

김성 군수는 "올해 마라톤대회를 통해 '정남진에서 중강진까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모두의 마음이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장성 인공지능 CCTV '군민 안전 지킴이' 맹활약

음주운전자·절도범 검거 성과…AI 분석 신속 대응

장성군이 전남 최초로 지역 내 모든 폐쇄회로 TV(이하 CCTV)에 인공지능 기술하며 군민 안전을 효율적으로 지키고 있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사진)은 기존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사람·차량 식별 및 동선 추적 ▲인상착의 검색 ▲화재·폭력 등 이상행위 자동 감지 ▲차량번호 검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감지된 내용을 화면에 띄우면, 관제 요원이 상황에 맞게 즉각 대응한다.

지난달 초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차량이 도주하자 장성경찰서가 군청 관제실에 시스템 이용을 요청했다. 군은 차종, 색상, 차량번호 등을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검색해 검거를 도왔다.

또 지난달 14일 새벽에는 공공시설물 절도 장면을 인공지능이 포착해 관제 요원에게 알리기도 했다. 상황을 확인한 관제요원은 즉시 장성경찰서에 이를 신고해 단시간에 절도범을 붙잡았다.

성과가 잇따른 만큼, 외부 평가 결과도 양호하다. 장성군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전남도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기록하는 등 호평을 얻고 있다.

군은 방범용 CCTV 성능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반기 중 저화질 CCTV 218대를 전부 고화질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군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총 460개소 1천400여대로 모든 영상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과 연결돼 실시간 분석·활용되고 있다.

/장성=김문태기자